

제12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글_고등

<나눔이란? 우리의 작은 에코>

나눔, 그것은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의 미소,
교실에서 서로의 필기를 공유하며 흐르는 웃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우리의 삶은 빛나게 하는 작은 반짝임.

점심시간, 함께 나눈 샐러드 한 그릇으로
건강도 챙기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두 배로 즐기고,
수업 중 놓친 부분은 친구와의 메시지로 메워
정보를 나누며 연결되는 우리 사이.

저녁의 긴 그림자 속에서 어머니에게 건네는
허브티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에게 전하는
달콤한 인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함께 마시는 차를
지친 친구에게 손에 쥐어주며 전하는 힘과 위로.

나눔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은 나눔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눔은 우리가 서로에게 미치는 작은 영향,
그 하나하나가 모여 만드는 큰 파장.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연결된 곳으로 변해가.

<나누는 삶>

새까만 구름 뭉치가 몰려와 하늘은 뒤덮고 추적추적 비가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여느 고등학교 삼학년의 주말이 그렇듯 눈은 뜨자마자 공부하러 갈 준비를 했다. 화장은 무슨 세수나 한다면 다행이다. 자다 일어나 눌린 머리 그대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옷가지는 땅바닥에 던져놓은 채 집을 나섰다.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언니 우산은 슬쩍 집어 들었다. 비 오는데 행여 물이라도 뒤길까 반바지를 입었더니 서늘하고 습한 바람이 다리 사이를 쓸랑 스쳐 지나갔다. 우산 손잡이를 꼭 붙잡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은 걷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도 노래와 함께하니까 나뭇 나뭇잎만 있구나, 노랫소리 뒤로 살짝 들리는 토도독 빗방울 소리마저 묘한 안정감을 불러와 나뭇잎만 있다. 도서관 앞 맨홀 뚜껑 옆에 파인 구덩이가 욕심껏 아가리를 벌려 빗물은 모으고 있었다. 너 욕심쟁이구나. 나는 알뜰하게도 운동화를 신은 채 양말이 젖지 않은 정도로만 물웅덩이를 살짝 밟아보았다. 그 때문에 양말 끝이 살짝 젖어 축축해졌지만, 출렁거리는 웅덩이의 표면이 날 들뜨게 했다. 우산은 때리는 토도도독 소리가 제법 좋아서 에어팟을 집어넣었다. 이게 진짜 낭만이지, 가만히 빗소리를 듣고 있다가 물에 젖어 점점 차가워지는 발끝이 신경 쓰여 독서실로 발걸음은 재촉했다. 독서실에 거진 다 와서 상가건물 앞을 지나갈 때쯤 빗줄기가 제법 굵은데 우산은 쓰지 않은 한 사람이 내 이목을 끌었다. 주황색 상의는 비에 젖어 어깨 부분부터 점차 진한 주홍색을 띠었고 군데군데 있는 흰머리는 물기를 머금고 검은 머리와 딱 붙어서 고집스레 뭉쳐있었다. 문득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우산은 씩씩 드릴까 하다가,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면 어찌지. 멈추어 서서 고민은 하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특이했다. 절름거리며 걷는 모양새는 작은 체구인 그가 더욱 작아 보이게 하는 듯했다. 신경 쓰이는 작은 어깨를 뒤로한 채 가뜩이나 불임성이 없는 내가 우산은 씩씩드린 뒤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멈춰 섰다. 사람들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비를 맞기 싫은 건지 다들 빠른 걸음으로 예민하게 그의 곁을 지나쳐갔다. 그때 힘이 부치는지 작은 사람은 멈추어 섰다.

그제야 나는 용기 내어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나는 우산을 씌워 드리며 어디까지 가세요? 여쭙며 어색한 첫인사를 내뱉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학생 참 고맙다며 웃어주시는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니 잠깐이나마 고민을 했던 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다. 요 앞의 차가 왔다면 가리킨 장애인 콜택시는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다리가 많이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굼똘했다. 나는 그를 부축하며 초독딱가 붙은 차 문을 대신 열었다. 비를 오래 맞은 것일까 그의 젖은 어깨는 빗물보다도 서늘했다. 문 닫기 전, 그는 마지막까지 고맙다며 사람 좋게 웃어주셨다. 나는 학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제탐구까지 한 적이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배운 것이 떠올랐다. 장애인 콜택시는 잘 잡히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호출 후에 대기 시간이 아주 길다는 것을 안다.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빗속에 한참을 서있었을 그 노인을 떠올리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자동차는 이미 멀어진지 오래이지만 나의 발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나에게 참회의 시간을 주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것은, 결국은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독서실로 향했다. 그의 웃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 미소는 더없이 따듯함을 전해주었다. 내가 나눔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말이다. 앞으로는 고민 없이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실천까지의 고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작은 나눔은 마음의 풍요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때는 정의 나라였던 한국. 이제는 정의 고갈된 사회라고 하지만, 모두가 펌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바싹 말라버린 우물 안으로 마음속 온정을 퍼올려 가득 담아야 한다. 누구도 세상을 나눔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는 모두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작은 발자국이 버팀목이 되기까지 >

세상에, 거리에 발을 디더라도 티도 안 나던
작은 발자국이 수많은 계절은 지나
티가 나는 버팀목 같은 큰 발자국이 되기까지의 난

초등학교 입학하여 짝지에게
지우개 빌려주는 선행 베풀고
초등학생에겐 큰 금액이었던 동전은
한 푼 한 푼 모아 월드비전에 따뜻함 담아보냈네

지금 와 보니 작은 발자국이 보이지는 않아도
열심히 자국은 내고 있었구나

중학교에선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
직접 손소독제 만들어 나눔 했고
축제 때 부스 운영비를 모아
마음의 공간이 쓸쓸한 분 도와드렸네

크면서 느끼는 나눔의 즐거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움의 손길

고등학교에 올라오며 처음으로 헌혈은 했던 날
간호사의 따끔하단 소리와 함께
호스 타고 나의 용기와 따뜻함 가득 쌓이네
나의 용기로 가족 모두가 함께 마주보고 웃는 날이 오길

이젠 세상에 발자국이 남고 힘든 분들의 버팀목이 되어
그늘이 되어주고 싶고 웃음 버든이 되어드리고 싶네
나는 생각한다 나눔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구나
나눔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것도 누구에겐 큰 도움이 되구나

<명주를 발견한 여행>

“우와~~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

동방명주를 본 유나의 감탄 섞인 외마디 외침이 귀에 쟁쟁하다.

“그러게, 진짜네!”

유나와 함께 상하이 시내를 누비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유나는 내가 작년까지 재학했던 상해한국학교의 특수학급 친구이다. 특수반 친구들과 나눔의 시간을 보내는 도래 도우미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유나는 나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준 소중한 친구이다. 장애인 친구와는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내 편견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도 잘 맞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마음이 편했다. 밥 먹는 속도가 느린 나에게 유나는 누구보다 잘 맞는 급식 친구였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들 친구들과도 맞지 않았던 나는 유나와 함께 수다 떨며 교내를 산책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영혼의 단짝 같았다.

유나와 알게 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주말에 특수반 친구들과 1박 2일로 상하이 시내 여행을 갈 사람을 찾으셨다. 유나와 1박 2일 여행이라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나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다. 나의 친구 유나와 우리 반 친구들이 친해지면 좋은 것 같아 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같이 갈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엑? 귀한 주말에 개들이랑 내가 왜 여행을 가~?”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굳이 상하이 여행을 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특수반 친구랑 가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

돌아오는 냉랭한 반응들.

적어도 고민이라도 해볼 줄 알았는데.

무엇보다 특수반 친구들과 대화 한마디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점이 너무 씁쓸했다.

반 친구들의 반응은 제쳐두고 나는 유나와 즐거운 상하이 시내 여행을 떠났다. 유나뿐만 아니라 다들 특수반 친구들과도 함께 친해질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유나, 민준이, 재영이, 다솜이... 친구들과 방문하는 상하이 곳곳은 이미 여러 차례 방문했던 장소이지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벌써 5번째 방문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그러했다.

“얘들아,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고, 대한제국이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3.1 운동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세워진 곳이야!”

“몰랐어. 그렇구나~”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초궁초궁한 눈빛과 활기 있는 반응이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 이후 가는 곳마다 내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동방명주.

유나에게 동방명주가 왜 이름이 동방명주인지부터 알려주었다.

“유나야, 동방명주가 왜 동방명주인지 알아? 동방은 여기 상하이를 말하는 거고, 명주는 빛나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아끼는 사람이나 아담다운 것을 뜻하는 거래~”

“흠... 그래? 서현아, 난 우리 관계가 마치 저 반짝반짝 빛나는 동방명주 같아.”
평소 감상할 때마다 빛났던 동방명주가 유나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예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상하이의 명주도, 나의 소중한 명주도.

교내 신문부에서 공지한 체험활동 관련 기사 공모를 보고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 한 상하이 투어 이야기를 기사로 담아 제출했다.

상하이 한국학교 2023년 10월호 신문에 실린 나의 기사.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한 1박 2일, 잊을 수 없는 추억’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방문한 곳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 기사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친구들의 생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특수반 친구들과 함께 마음은 더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학은 온 첫날, 장래 희망은 적는 설문은 작성하였는데 고민하다가 작성한 4글자.

‘특수교사’

지금까지도 작년 상하이 투어 때 나의 설명은 듣는 초공초공했던 친구들의 눈빛과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던 동방명주가 생각이 난다. 잊지 못할 나의 여행. 그때의 마음은 간직하며 나도 빛나는 명주 같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 꿈은 이론 멋진 모습으로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

<나눔수록 더 커져가는 기쁨>

나눔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라는 뜻으로 나의 것을 다든 사람에게 준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눔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눔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저에게 나눔이란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처럼 소중한 하나를 두 개, 세 개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나누는 따뜻한 전파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촛불이 자신의 불을 다든 초에 옮겨 주어도 그 빛이 꺼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촛불로 인해 밝아짐이 커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눔은 세상을 비추는 밝은 촛불, 바로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어릴 적, 나눔의 그늘 아래에서 사랑이라는 더 큰 열매를 받고 자랐습니다. 나눔의 자원봉사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분, 저희 부모님은 따라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어린 시절부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선명요육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봉사단체에서 처음 만나셨으며 '나눔'이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결혼하여 오빠와 제가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이 시작했던 나눔의 봉사가 두 분의 인연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두 아이의 따뜻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나눔과 봉사가 무엇인지도 모든 채 그냥 부모님과 오빠를 따라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꼭 들러 낯선 분들에게 둘러싸여 뛰어다니기도 하고, 넘어지고, 웃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분들의 돌발행동에 놀라고 울기까지 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편안한 일상을 나누기까지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명요육원을 처음 갔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색함과 낯선 분위기, 소리 지르며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냄새 때문에 저는 무서운 마음에 엄마 뒤로 숨어버렸고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생활관 구석에 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은 보면서 어느새 동기부여가 되어 저 또한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은 경험하고 함께하면서 틀림이 아닌 다듬의 의미로 각자의 특성은 인정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봉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로 그곳의 언니, 오빠들과 함께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차츰 그분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만남으로 시작한 나눔이 오빠와 저에게 큰 감동은 주었고 그런 모습은 보고 마음이 전해져 지금껏 함께 나눔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제가 가진 작은 재능과 마음을 나누는 쉬운 일이지만, 그곳의 생활인분들은 그 따뜻함은 2배, 3배를 저에게 나눠 주시는 것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나눔 활동은 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 하였습니다. 예전 겁이 많았던 꼬맹이가 토담사랑채에서 15년 동안 많은 생활인분들로부터 나눔이라는 선물은 받고 그 마음은 또 다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있는 나눔으로 인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의 계기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나눔의 참된 의미를 깨치고 사회의 좋은 전파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해, 저의 자원봉사 이야기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값진 상금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금으로 의미 있는 나눔을 하고 싶었고 저는 제가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명요육원의 언니, 오빠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의 일부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수면양말은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 아버지께서 신겨주셨던 그 양말의 의미를 담아 그분들께 도 아버지께서 신겨주셨던 그 따뜻함을 나눠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그분들과 양말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다양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티끌모아 태산’.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긴 할까?’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하는 나눔들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나의 이 행동 하나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눔의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제가 하는 봉사와 나눔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긴 할까?, 실력도 부족하고 대화조차 나누기 부끄러워하는 나인데 이런 나 하나 더 봉사하러 온다고 뭐가 달라지긴 할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행동들이 다 의미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눔에 언니들이 웃음으로 답해 줄 때, 저는 나눔에서의 티끌모아 태산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나눔을 실천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명요육원은 처음 갔을 때 두려움에 떨며 겁이 많았던 예전 그 꼬맹이가 토담사랑채에서 15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살의 제가 할 수 없었던 휠체어를 이제는 능숙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갑자기 다가와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을 하여도 이제는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산책길에 손잡고 걷기만 하여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크고 좋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비싼 물건을 선물하는 것만이 좋은 나눔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을 나누고 더 가득해진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며 내가 가진 마음을 나누고 나눠서 모두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밝게 밝힐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명요육원은 처음 갔을 때 두려움에 떨며 겁이 많았던 예전 그 꼬맹이가 토담사랑
채에서 15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살의 제가 할 수 없었던 휠체어를 이제
는 능숙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갑자기 다가와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은 하여도
이제는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산책길에
손잡고 걷기만 하여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크고 좋은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비싼 물건을 선물하는
것만이 좋은 나눔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을 나누고 더 가득해진 마음은 또 누
군가에게 나누며 내가 가진 마음을 나누고 나눠서 모두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밝게 밝힐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
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한국의 나눔의 문화중 대표적인 것은 이사 떡 문화이다. 이 문화는 귀신은 내쫓는 행위에서 유래했다. 이사라는 특별한 날은 축하하면서 낯선 동네의 이웃들과 첫 대화를 틀 수 있는 최고의 한 접시이자 따뜻한 나눔이다. 단지 떡은 나누다는 의미가 아닌 떡은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한국의 고유문화이다. 비독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웃들과 만나는 횟수들도 줄어들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살면서 한번쯤은 이웃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웃들과의 갈등의 생겼을 때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요새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는 세대들은 더욱더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어지고 나눔의 문화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강하다. 다든 사람보다 개인의 이익만은 중요시하며 서로를 위해서는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웃과 기쁨은 나누며 잔치를 베풀던 옛날의 문화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사회에 반감은 가지고 묻지마 살인은 저지르는 사람이 생겨나고 혹은 주변에서 더 이상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왜 기술과 의학과 경제는 발달해 가는데 삶은 더욱더 늙어 빠지는 것 같은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나눔의 의미는 물질적 나눔인 것 같다. 사실 아프리카의 기아들이나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돕는 광고를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나눔은 물질적 나눔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물질적 나눔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눔이란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 머리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러한 물질적 나눔인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자살인구수 혹은 많은 범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관심의 나눔인 것 같다. 이러한 사건은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들 자신은 이해와 위로를 해주고 사랑과 관심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이 아프다. 그들은 위한 최고의 나눔은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의 위로와 사랑과 조금의 관심이 필요할 뿐이다. 시대가 개인주의의 사회로 변해가면서 이러한 관심의 나눔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두 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 한번 다가가보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 만약 그 사람이 행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웃음은 나누어 줄 수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조금의 따뜻한 말은 건네줄 수 있다.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위로나 혹은 웃음 같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있는 것은 나누어 준다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엄청 기쁜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맞들면 더 훨씬 나음이 분명하다.

<힐링 하우스>

코로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은 팬데믹이었다. 코로나의 위험성으로 인해 학교는커녕 가족 간의 만남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발병이 5년이 지난 지금, 우린 코로나를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코로나 발병 전에도 사람은 집으로 잘 들이지 않았었다. 손님맞이 준비가 힘들고 사실은 그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코로나는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을 거절하기엔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주었다.

그랬던 우리 가족의 실세인 어머니의 입에서 작년 말에 “집은 힐딩 하우스로 만들자!”라는 말이 나왔다. 힐딩 하우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치유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힐딩에 초점은 맞추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은 나누며 치유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우리가족이 다든 사람에게 뭘 나눌 처지가 되는가? 우리 집이 힐딩 하우스를 연다고 해도 과연 누가 선뜻 올까? 엄마한테 끊임없이 말해보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은 굳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닌 며칠씩 지내면서 밥도 먹고 같이 여가도 함께 즐기는 힐딩 하우스가 형성 되었다. 불편했다. 그렇게 만남은 자주 갖지도 않고 말도 잘 섞지 않던 사람들과 하루아침에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은 해야 한다니 이토록 거부감이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니 가족에게도 점점 날이 서게 되었다.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다. 보통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어야 할 일이 집에 다든 사람들이 있으니 어머니가 쉽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던 날,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한 자리로 부르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우릴 바라만 보셨다. 그리고 힐딩 하우스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물어보셨다. 당연히 좋은 의견이 없었다. “우리 가족이 부자도 아닌데 이게 맞나?”,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는 묵묵히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입을 여셨다. “난 얻은 것이 있어.” 우린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음이야.”, “엄마가 우리 집 형편을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엄마도 ‘내가 이 형편에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란 생각부터 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돼야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사랑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니? 행복도 내가 행복한 상황에 있어야지만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 엄마도 그 사람들을 통해 나눔은 기부 같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나눔이더라. 또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마음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더라.”

그랬다. 나에게 나눔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힐딩 하우스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며, 형편이 돼야지만 하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마음은 나눔으로 인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것은 배운 내가 자라 어느덧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힐딩 하우스를 세워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그런 힐딩 하우스를 세울 것이다.

<부끄러운 나눔>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이다. 7월쯤이었을까? 우리 학교에서는 방학은 했었고 선생님께서는 방학식에 작은 숙제를 내주셨다. 그 숙제는 나눔 저금통이라는 숙제였는데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은 돕기 위해 돈은 방학동안 저금하는 것이었다.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저금통이 너무 귀여워서 집에 가자마자 나는 책상에 올려두었다.

방학이 하루 이틀 지나갔다. 방학이 지나가는 만큼 나의 작은 나눔 저금통도 점점 잊혀갔다. 그렇게 점점 개학은 다가왔다. 길었던 방학이 하루 이틀 남았을 때였을까? 까먹고 있던 나의 나눔 저금통이 생각난 것이다. 나눔 저금통에는 돈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 작은 저금통의 바닥이 겨우 가려질 정도였으니깐.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숙제를 안 해갈 수는 없어 결국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은 했다. 엄마는 나에게 꾸중은 하셨고 그 후 만 원짜리 하나와 천 원짜리 몇 개를 주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앞에 있는 마트에서 동전으로 바꿔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마트에 달려갔다. 아이스크림은 하나 사고 마트 아주머니께 동전으로 바꿔주시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렇게 나는 양손 가득 동전이 생겼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동전은 저금통 속에 넣었다. 가벼웠던 나의 저금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거워져 있었다. 그런 저금통은 본 나는 내가 가장 많이 저금했은 거야 생각하며 뿌듯했었다.

드디어 개학 날이 되었다. 나는 나의 뚱뚱한 저금통은 자랑하고파 가방에 넣지 않고 손으로 들고 갔다. 옆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우와. 진짜 많이 모았네.' 생각하는 것만 같았다. 집에서 교실까지 가는 길이 마치 나만의 레드카펫은 지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교실로 도착했다. 방학이었어서 그랬을까? 매일 있었던 교실이 조금은 어색했다. 그때였다. 우리 반 친구 한명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와 너 돈 진짜 많이 모았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점점 나에게 다가와 저금통은 보며 많이 모았다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나의 뚱뚱한 저금통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잠시후 반장이 들어왔다. 반장은 평소 기부나 봉사를 많이 하는 친구였다. 그래서 반장의 저금통도 당연하게 뚱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장의 저금통은 반 정도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다. 정말 의아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는 나눔을 좋아하는데 왜 저금통에 돈은 많이 담아오지 않았어?” 그때 반장은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줬다. “나는 용돈은 일주일에 2000원 받아. 그래서 내 과자랑 학용품 사는데 1000원 쓰고 나눔 하려고 1000원 저금했어. 무려 일주일 용돈에 반은 저금했는걸?” 나는 또다시 물어봤다. “엄마, 아빠한테 돈은 더 받아서 저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장은 또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기부에는 돈의 양이 중요하지 않대. 돈보다는 그 안에 내 정성이랑 최선을 들어가면 그게 진정한 나눔이래.” 나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돈이 많은수독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나의 많은 질문에 반장은 계속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백만 원을 가진 우리 엄마, 아빠가 만 원을 기부하는 거랑 만원을 가진 내가 만원을 기부하는 거랑 뭐가 더 정성과 최선을 들어갔은꺼 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원을 가진 내가 만원을 저금하는게 더 정성과 최선을 많이 들어갔은 꺼라 생각하는걸”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한 건 진정한 나눔이 아니구나. 내 저금통에는 정성과 최선을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때 나는 내 뚱뚱한 저금통이 부끄러워졌다. 오는 아침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뚱뚱한 내 저금통을 부끄러워 자연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나눔 저금통을 앞에다가 놓으라고 하셨다. 나는 옷으로 부끄러운 내 저금통을 가려 몰래 저금통을 냈다. 아이들의 저금통은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아이들의 저금통은 나처럼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아이들의 저금통은 반장처럼 반만 차 있었다. 또 몇몇 아이들 중에는 저금통을 아예 놓고 온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은 저금통을 가지고 온 모든 아이들에게 칭찬해주셨다. 하지만 나는 칭찬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냥 내 뚱뚱한 저금통이 부끄러웠다.

그 이후 이런 숙제가 생길 때마다 이때의 일을 생각하곤 했다. 다음 숙제, 다다음 숙제는 내 뚱뚱했던 저금통보다 돈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나 내 훌쩍한 저금통에는 정성과 최선을 들어 있었다. 그래서 뚱뚱했던 내 저금통보다 훨씬 자랑스러웠다. 더이상 내 저금통은 부끄러운 저금통이 되지 않았다.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따스합니까?>

전봇대에 간신히 붙어있는 종이 한 장
바람에 찢긴 너덜너덜한 모서리가 마치 나와 같구나
발걸음은 멈춰 또 다든 나의 줄글은 읽는다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따스합니까?
바람이 지나간 곳은 어루만지던 손이 멈춘다
타인에 대한 동정은 득볼 것이 하나 없다

꼭꼭 길바닥의 눈은 밟아대며 다시 걷는다
금방 눈이 쌓여 희미해진 사람들의 발자국은 밟으며
칼바람은 몰고 온 회색 버스에 몸을 싣는다

젠장,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하나 나오지 않는다
버스 기사의 고함과 뒷 승객들의 한숨소리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좌석의 수 많은 눈들이
그들의 얼어붙은 심장에서 뱉어진 찬 기운이
버스 바닥은 빙판길로 만들어 난 미끄러지듯 왔던 길은 되돌아간다

엔진의 건조함이 없어질 때 즈음
누군가 어깨를 툭툭치며 천원짜리 지폐들은 내밀었다
노오란 버스가 정류장에 끼익 멈춰서자
그는 내 손은 붙잡아 돈을 쥐어주곤 버스에 올라탔다

그에게 손을 잡힌 순간 알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따스한 심장을 소유한 사람인지
따스하다 못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는
지나간 자리에 온전히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지

내 앞에 멈춰선 빨간 버스에 올라타 인사를 건넨다
웃으며 화답하는 기사를 보며 다시금 느낀다
나 또한 얼어붙은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따스한 심장은 겨울날도 봄날처럼 인식한다는 사실은 말이다

집 앞 가로등 아래 떨어진 종이를 주워본다
전봇대에서 떨어져 나간 힘 없는 종이 한 장
발걸음은 멈춰 가로등에 종이를 감싸붙인다

당신의 심장은 얼마나 따스합니까?
테이프를 가방에 넣으며 한껏 웃어본다
어쩌면 나눔은 동정으로 칭하며 외면했는지 모른다
환한 가로등은 오늘따라 아담답다
꼭꼭 길바닥의 눈은 것처럼 녹일 수 있길 기도하며 걸어간다

<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 >

나눔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초등학교 4학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것은 영어를 잘하는 능력 밖에는 없었습니다. 한글은 아예 몰랐던 저는 동화책을 읽으며 한글을 배웠고, 5학년이 되었을 때 저학년 교실마다 돌며 동화책을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소소한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너무나 좋아해 주는 동생들을 보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한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저는 제 나눔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재능을 살려 3년 동안 전래동화 편역 동아리의 장으로서 한국의 교훈이 담긴 전래동화를 영어로 편역하여 제 3세계 아이들에게 기부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기여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 봉사자들이 이웃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고, 독거노인분들이 살아가는 힘겨운 현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만의 봉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WITH’라는 원주시 청소년 봉사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WITH에서는 독거노인 및 시각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걷기 대회 등 활동을 하였고, 중3 때는 WITH의 대표로서 줌으로 장애가 있는 어권 친구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나눔은 학교를 벗어나 저희 시, 그리고 세계 반대편의 아이들에게 뻗었습니다. 이후 워드에서 봉사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뵈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은 받지 못하고 계셨고, 저는 단체뿐만이 아닌 나 스스로 작게나마 봉사를 시작하여 주변 친구에게도, 더 넓게는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분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저의 나눔은 제게 제 주변 환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을 선물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기 말에 학교에서 버려지는 책을 트럭이 수거하러 오

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으로 책 기부 도시락 나눔'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과 선생님들께 책을 기부받고 그 책들은 다시 학교 학생들에게 재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이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시각 장애인, 독거노인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기부받고 판매한 덕분에 원하는 만큼의 도시락 수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의 도움으로 많은 도시락을 배달했고, 너무 맛있게 잘 드셨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와 친구들 모두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고, 함께한 친구들과 다음 봉사를 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학기에 같은 방법으로 베품시장은 개최하였습니다. 안 쓰는 물건뿐만 아니라 아끼는 물건을 가져온 친구들도 있었고, 많은 물품은 기부받아 판매하여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건이 들어와 팔리지 않은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은 새터민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도시락 나눔은 한 후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 주변에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나눔은 물리적인 것을 벗어나 다든 사람의 마음속에 전달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글을 배웠고, 한국에 온 지 3달 만에 한국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전래동화 번역을 하면서 동화책은 아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함께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영어로 전래동화를 편역하고 직접 그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줌으로 책을 읽어주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책 2권을 그려 스프딩 제본했고, 그 책을 지역 시립도서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글과 영어로 된 전래동화

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그림은 그려 만들었고, 유페이퍼, 아마존에 저의 책 2권은 출판하여 등록했습니다. 또한 제 어권 시절처럼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책은 다양한 나라의 한글학교에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그중 캐나다 한국 교육원, 유타 한국학교, 캐나다 대사관, 밴쿠버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 등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책은 이용하겠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 저는 국제 청소년 동

화책 쓰기 대회에서 수상하여 제가 지은 책이 (사)희망도서관 앱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희망도서관은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기업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면담은 요청하여 상의 후 학교에 희망 도서관 동아리를 설립하여 한국 전래동화책은 번역하고 그릴 12명의 부원은 모집하였고, 바로 활동은 시작했습니다. 유페이퍼,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제 책은 먼저 희망도서관 앱은 위해 드렸고, 현재는 동아리원들과의 두 번째 책은 제작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은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고,

특히 장애인 가족 걷기 대회에서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제게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우리 지역 장애인분들이 구직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구직 정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공고를 모아놓은 우리 지역 장애인 전용 구직 앱은 만들 생각이었으나, 이미 대형 웹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장애인 일자리 전산 시스템이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인글 알림은 보내는 방법은 택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가능하다면 '장애인잡'과 같은 대형 구인 사이트와 협력해서 앱을 만들고, 이 앱은 통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도울 계획입니다.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반찬 배달 봉사가 저의 책은 출판하고 회사와 함께 앱은 꾸며나가며 장애인 구직 정보를 위한 앱은 구상하는 것으로 이어질 줄은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저만의 봉사를 키워왔던 것처럼 꾸준히 키워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나눔은 저라는 사람을 바꾸어주었습니다.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생각 중 하나는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면 본인이 무언가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누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만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기적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 감정 중에 다든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면, 나에게 부족하던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나라는 사람은 바뀌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 후, 나를 보게 되면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나눔은 통해 더 많은 것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 >

나눔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사람들은 도와주는 봉사 활동이 나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은 나르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나눔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또한 의미있는 나눔은 음악이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봉사활동은 해보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봉사활동은 생활기독부에도 적혀있는 재능기부 즉 오케스트라활동을 통한 나눔인 것이다. 나에게 음악이란 악기가 만들어 내는 소리 이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언어였다.

세븐틴의 노래 음악의 신 중에서 “전 세계 ah 공통의 language (hoo) 자음과 모음이 달라도 상관없는 건 music 말이 안 통해도 음악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아주 친한 친구” 라는 가사가 있다.

베트남 학교다보니 한국인, 베트남인은 넘어선 미국인 혹은 캐나다인등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우리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러 오는데 연주석에서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관객석의 모습은 보면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바이올린은 연주하게 된다. 내가 사는 베트남에서는 매년 사이뮤즈라는 행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은 위로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베트남의 모든 국제학교들이 모여 작은 성금들은 모아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었다.

누구는 배 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당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은 것과 돈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악은 그 사람들의 지친 마음은 위로하고 눈물과 기쁨은 선물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언어였다, 악기를 연주하는 내내 관중들과 시선은 맞추며 연주자들과 관중들은 하나의 리듬과 선율로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었다, 신나는 음악으로 기쁜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슬픈 음악으로 마음 속에 엉키고 쌓인 아픔은 눈물로 쏟아내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음악은 정말 위대한 언어였다. 과학을 공부하는 나로서는 만약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다든 언어로는 소통하지 못해도, 음악으로는 우주의 어느 외계인인과도 마음과 마음은 이어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런날이 오게된다면 내가 직접 연주를 할 것이다.

이렇듯 나에게 나눔이란 음악이다.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

< 나눔이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밥은 먹고 난 뒤 씻고 교복까지 입어 책가방은 메면, 학교갈 준비가 완료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학교 걸어가는 길은 유심히 쳐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다양한 나눔들이 눈에 속속히 들어온다.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에게 다가가면,
여러 뭉쳐서 자고 있는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나무가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눠주면
그들의 집이자, 삶이자, 안락처가 된다.

산에 위치해있어 높고 높은 학교를 바라보면,
그 아래에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한 계단이 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리를 움직여 올라가면,
오르막길은 위험하게 올라가지 않고 편히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나눠주는
계단과 인사하게 된다.

뽕뽕히 채워져 있는 책장 속에 떼 묶은 책 하나를 집어들어 조심스레 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 고스란히 눈에 새겨진다.
우리가 알기 쉽고 보기 쉽도록 친절하게 적혀있는 책을 읽어보면,
넓고 큰 품으로 활짝 우리를 안아주는 책이 상냥하게 지식을 나누어준다.

학교가 끝나 어두컴컴해진 밖은 한참은 들여다보면,
하나둘씩 어두워진 나를 밝혀주는 가로등이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며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이곳으로 가라며 나의 등을 밀어주며 내 손을 잡고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가로등이 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눈은 잠시 가리고 나와 동네를 둘러보면,
수많은 나눔들은 만든 사람들이 속속히 눈에 들어온다.
그들은 나무에게 물을 주며,
쉽고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은 만들고,
책은 만들어 지식은 쌓게 도와주며,
보이지 않는 길은 환히 밝혀주는 가로등은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은 나누어준다.

나눔이란,
행복이며,
사랑이며,
희망이며,
기적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나눔은 주면,
그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은 받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은 줄 수 있다.